

어린이 책꽂이

▲발해의 사신들=고구려의 영광을 이어 대제국을 만든 발해 사신들의 이야기. 일본과 교역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사신들의 항해술과 발해의 선박기술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너희는 왜 사랑잡에서 사니?=초등학교 저학년용을 위한 자연과학동화로 어린이가 알아야 할 동식물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산이나 들에서 살지 않고 농가에서 사람의 일을 도우며 사는 소·돼지·닭·개의 특별한 삶을 그리고 있다.

▲프랑켄슈타인 비밀찾기=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서명이 된 행운의 편지와 함께 벌어진 미문의 사건을 쫓는 문학 수사라의 모험 이야기.

열혈무술 소년과 방탕한 부자집 소년 한 팀이 되어 상반된 캐릭터로 범인을 잡는다.

▲한글이야기=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일상에 쫓겨 놓았던 한글에 관한 기초 지식이 담겨 있다.

한글이 만들어진 숨은 이야기, 한글의 별명, 자음과 모음의 역할 등이 소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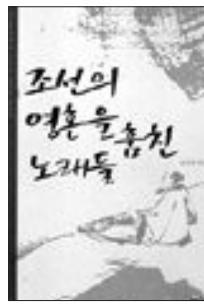
▲황사의 여행=환경과 과학을 접목시킨 '환경동화 시리즈'. 지구 환경을 어떻게 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피해 예방책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조선 시기에 담겨진 벗·술·사랑·이별

조선의 영혼을 훑친... 김용찬 지음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 마지막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을 달랠다. 때로는 목청껏 소리를 질러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노래는 우리의 삶에 있어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활력소다. 그렇다면 옛 사람들에게 노래는 어떤 의미였을까.

저자는 "옛사람들은 시조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고 풍류를 즐기며, 당대의 현실과 역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그들의 '현재'가 우리에게 '미래'이지만 그들의 '현재'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조선시대 고전시에도 사랑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표현한 경우가 많다. 그림은 신윤복이 그리움을 주제로 그린 '기디림'.

대부 김이익(1743~1830)은 서로 다른 음악적 취향 때문에 겪는 갈등을 시조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체통을 중시하느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따돌려 버리지 않았던 양반들이 빠른 화로리 장단의 노래가 등장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다.

술을 주제로 한 수많은 시조 작품을 통해 술과 시조는 사대부의 풍류에 빠져서는 안 될 필수품임을 알 수 있다. 시조에는 술 자체를 탐닉하거나 자신을 알아주는 반가운 벗과 함께 정을 나누는 수단으로 술을 노래하기도 한다.

'사람'을 주제로 한 시조도 많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애정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감성표현에 관대해지면서 기다림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짓달 지나기 밤을 한 해를 배어내어/춘풍 이불 아래 서서러려 넣었다/어련한 오신 밤이 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그 중 황진이의 시조는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동짓달 밤의 한 토막을 배어내겠다'는 표현에서 시간을 감각적으로 재단하고, 따뜻한 이불을 '춘풍 이불'이라고 표현하는 등 탁월한 언어감각을 엿볼 수 있다. 비록 그녀의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정신과 열정적인 삶이 그대로 묻어난다.

평소 고구려다 생각했던 작품들을 읽다 보면,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와 선인들의 뛰어난 언어 감각에 감탄을 하며 시조의 묘미에 빠져들게 된다.

또 시조들을 통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는 옛사람들의 의지도 느껴진다.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갖고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올 봄 자연의 경치를 둘러보며 시조 한 수를 읊어 보는 것을 어떨까.

〈인물과 사상사·1만4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가난한 시절에 받았던 책 자체가 보물이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무슨 원대한 목적으로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교 때 계사 선생으로부터 추천받은 책이었다. 당시 우리집에 잠깐 머물렀던, 졸지에 부모님을 잃고 무작정 상경한 이종 형이 있었다. 그가 나의 간절한 요구에 보내준 책, 그것은 마흔지에 조잡하게 인쇄된 두툼한 책이었다.

그 책을 구하기 위해 남대문 주변 헌책가게에 통금일 임박할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했다. 자신이 일하는 기림집 일이 10시가 넘어서야 끝났기 때문이다. 보내준 책을 나는 달력 뒷쪽이로 표지를 입히고 책꽂이를 조립해서 만든 서가에 꽂았다. 바라던 책을 얻으니 보기도만 해도 오싹했었다. 책에서 읽을 때마다 참기름 냄새가 풍겼다. 그 내음과 함께 러시아 역사는 광활한 품을 열고 웅변으로, 때로 속삭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책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등장인물만 해도 30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난의 재수시절 다시 책을 열고 황홀한 눈을 보았다.

책은 1865년부터 시작된 나폴레옹 전쟁기, 프랑스 침공에 상처 받은 러시아 국민의 피폐한 삶을 엮고 있다. 어떤 소설도 이처럼

불멸의 역사와 황홀한 만남



사실 묘사의 정교함과 다양한 심리분석으로 드러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과 평화'에는 귀족과 농민, 황제, 외교관, 신하 등의 인물,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전쟁서술이 주축을 이룬다. 인물들의 출생, 성장, 사랑, 결혼, 출산, 죽음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른바 대서사시다. 여주인공 나타샤는 활기 넘치는 여인이다. 무능하지만 지적 호기심이 강한 피에르, 세련되고 오만한 안드레이, 두 주인공의 도덕적 갈등은 압권이다. 작가는 인물의 유형에 따라 특정한 캐릭터를 부여하고 있다. 천박한 사교계 미인에게는 외형 묘사를, 복잡한 정서를 가진 여성에 대한 심리분석, 그리고 소박한 농부 카타야예프의 진지한 삶은 감동적이다. 전쟁에 치진 피에르의 카타야예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결국 사랑하는 나타샤와 결혼하여 평화롭게 산다는 줄거리를 톨스토이 자신도 인정했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단점으로 꼽힐 것이다. 그 이후 세상이란 실로 참담한 전쟁으로 점철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이 책은 우리 집 서고에 있다. 좋은 번역과 디자인으로 세상에 나온 수많은 '전쟁과 평화'가 있으나 최초의 역사를 알게 해준, 그리고 이종 형의 애독한 때문에 바래고 알아보고 힘든 활자의 이 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대문을 뒤져 책을 찾던 형과 선물들을 기다리던 까까머리 고등학생의 추억이 담겨있어서 더욱 애뜻하지만 명작이 풍기는 진한 감동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로대로 못 기억된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사람과 사랑,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하다. 그 감동은 오드리 헵번이 주연을 맡은 영화 '전쟁과 평화'에서도 계속돼, 극장 안을 빠져나오며 허안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모스크바의 하늘을 떠올리게 했다.

러시아의 대화가 흐르듯 젊은 날 고뇌와 역사가 잠들어 있는 이 책을 나는 여름방학 때 다시 꺼낼 작정이다.

노창수 <광주일보 신춘문예위원장>

지치고 혼란스런 인간에 따뜻한 위로

작은 기쁨·작은 위로 이해인 지음

세상사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나왔다.

등단 38년째를 맞는 이해인 시인이 '작은 위로' 개정판 출간과 함께 여덟번째 시집 '작은 기쁨'을 발표했다. 이번 시집에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밝고 따뜻한 시 103편이 실렸다. 시인은 함께 걷자고 내미는 손,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에 얻는 '작은 위로'가 삶의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시를 통해 보여준다.

시인은 "이 안에 담긴 소품들이 독자들의 마음에 작은 기쁨, 작은 위로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림원·각 권 7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별이야기 조상호 지음

오랜 세월 인류는 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근대 과학 기술의 시작으로 불리는 뉴턴의 역학 역시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의 운동을 관찰하다 발견된 것이었다.

천체사진가로 다양한 과학서를 저술한 조상호씨가 펴낸 '42명의 천문학자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저술한 책이다.

책은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와 망원경의 시대를 연 갈릴레오, '헬리�센트'를 발견한 헬리는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적 성과를 이뤄냈는지 소개하고 있다. 또 천문학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의 누이동생이자 영국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였던 캐롤라인 허셜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크리에이트·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2명 천문학자들의 삶과 업적 소개

별이야기 조상호 지음

오랜 세월 인류는 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근대 과학 기술의 시작으로 불리는 뉴턴의 역학 역시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의 운동을 관찰하다 발견된 것이었다.

천체사진가로 다양한 과학서를 저술한 조상호씨가 펴낸 '42명의 천문학자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저술한 책이다.

책은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와 망원경의 시대를 연 갈릴레오, '헬리�센트'를 발견한 헬리는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적 성과를 이뤄냈는지 소개하고 있다. 또 천문학을 발견한 윌리엄 허셜의 누이동생이자 영국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였던 캐롤라인 허셜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크리에이트·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주)223-1140, 5210-110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주)192-4585, 011-804-6205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대주거지 1000평 대세대주백, 물류창고, 복지실바사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주)061-833-6669, 010-8004-6669
심.완도개인독선
별장.농장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6천200평 (마을앞)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금보부동산컨설팅
(주)281-8949, 011-602-2233
▶토지매매
▶건물매매
▶급매 고시원매매
▶주유소및 부지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상가건물/모텔

법원경매 전문회사
-할 암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원)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주택
▶아파트
▶토지